

《왕의 그림자》

앵글로색슨 최후의 영웅 해럴드

1064년 잉글랜드의 해럴드 백작은 부하들을 이끌고 영국 해협 순시에 나섰다. 산 같은 파도와 싸우면서 간신히 육지에 당도하고 보니 그곳은 해협 건너편 프랑스 땅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작에게 사로잡힌 신세가 된다.

클_박상의

해럴드와 윌리엄 모두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참회왕과 인척 관계였고, 에드워드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왕위 계승권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었다. 공작은 해럴드를 잉글랜드로 떠나보내기 직전 노르망디의 주요 귀족들이 모두 참석한 성대한 연회에 초대하여 깜짝 제안을 한다.

“지난 두 달간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해럴드 백작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소.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나는 내 딸 아가타와 해럴드 백작과의 약혼을 선포하며 경건히 기뻐하는 바이오. 이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해럴드 백작은 나를 주군으로 섬기는 데 동의했소. 친애하는 나의 시촌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잉글랜드의 왕좌에 앉을 거요. 해럴드 백작은 이 약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분들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앞에서 충성 서약을 하게 해달라고 했소.”

해럴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약혼이라니! 이를 거절하면 윌리엄과 그의 딸을 모욕하는 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부하들의 목숨도 걸려 있었다. 공작은 해럴드의 팔을 잡아 성골함으로 이끌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해럴드는 무릎을 꿇고 궤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우자 공작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궤에 바짝 붙어서 있으라고 명했다. 공작은 성골함을 덮은 보자기를 벗겨 해럴드가 얼마나 대단한 유골에 대고 서약을 했는지 알게 했다.

서약의 담보가 된 것은 거룩한 성인들의 유골이었다. 유골에 대고 한 서약의 구속력은 가장 큰 것이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었다. 해럴드는 마치 독약을 마신듯 고통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봉건 세계와 교회, 그리고 천국이 잉글랜

드의 왕권에 대한 윌리엄의 권리를 증언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서약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앵글로색슨 시대의 종말

1066년 1월 5일 참회왕이 죽었다. 후사 없이 죽은 왕은 나라의 재앙을 예고했다. 상황이 하루 빨리 안정되려면 잉글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 올드레드 대주교에게서 새 국왕이 왕관을 받아쓰고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다. 대주교는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해럴드를 잉글랜드의 새로운 왕으로 지명했다. 에드워드의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묻히던 바로 그 날 해럴드는 왕관을 썼다.

그 해 4월 하늘에 예시롭지 않은 조짐이 보였다. 긴 꼬리를 늘어뜨린 보름달만한 혜성이 나타난 것이다. 혜성은 2주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머물렀다. 76년 주기로 등장하여 항상 재난을 가져다준다는 헬리 혜성이었다.

에드워드 왕이 죽기 전 일종의 총리대신 역할을 맡아보던 해럴드는 1065년 말쯤 많은 동생 토스티그를 그의 영지인 노섬브리아에서 추방해야만 했다. 앙심을 품은 토스티그는 북유럽으로 건너가 반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1066년 9월 토스티그는 노르웨이의 약탈왕 하랄 호로데와 함께 잉글랜드 북부로 상륙했다. 런던의 해럴드 왕은 북부에서의 침공 소식을 듣자 군대를 모아 요크에 이르는 300km 거리를 하루 60km 이상의 속도로 달려갔다. 말에게나 사람에게나 대단한 무리였다. 9월 25일 요크를 지나 스태퍼드브리지에서 적과 만났다. 왕은 먼 길을 오느라 지쳤음에도 토스티그와 하랄 호로데를 죽였고, 300척의 배를 타고 온 침입자들은 간신히 스톨네 척의 배만 건져 달아났다.

회불단행(禍不單行)이었다. 스태퍼드브리지 전투가 있는 지 3일 뒤인 9월 28일 윌리엄이 7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잉글

랜드 남쪽에 상륙했다. 이 소식은 10월 1일 또는 2일이 되어 서야 왕에게 전달되었다. 해럴드는 아직 피로에 지쳐있는 군대를 이끌고 다시 전속력으로 남쪽을 향해 질주했다. 그것은 2주간에 걸친 두 번째 장기강행군이었다.

10월 14일 헤이스팅스에서 양측 군대는 결전을 벌였고 치열한 전투 끝에 해럴드는 전사한다. 왕위에 오른 지 9개월만의 일이었다. 겁에 질린 잉글랜드군은 숲 속으로 달아났다. 윌리엄은 해럴드의 죽음을 기념하여 거대한 기념 교회-베틀 수도원 교회-를 세우라고 명했는데, 이 교회의 제단은 바로 해럴드가 쓰러져 죽은 그 지점에 세워졌다. '서약 위반자'에 대한 잔혹한 보복이었다. 이로써 영국 역사에서 앵글로색슨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한다.

영국 역사의 분기점

헤이스팅스 전투가 있었던 1066년 10월 14일은 영국 역사상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전투 자체는 그야말로 백중세였다. 약간의 변수, 약간의 행운만 있었어도 승리는 앵글로색슨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 만일 해럴드가 승리를 거두고 목숨을 건졌다면 윌리엄은 모험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중원군을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해럴드가 승리를 거두었다면 잉글랜드는 서유럽 대륙에 대해 한층 심한 거리감을 가졌을 것이고, 앵글로색슨의 토착적인 문화, 예술, 문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달했을 것이다. 영어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언어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는 것. 운명의 여신은 윌리엄에게 미소를 보였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시종일관 패자인 해럴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

개한다. 승자인 윌리엄은 약탈자, 침략자로 묘사된다. 해럴드와 윌리엄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 것은 흥미를 증폭시키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 보면 될 것 같다. 작가가 밝혔듯이 이 소설은 앵글로색슨이 지배했던 잉글랜드의 마지막 날들을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다만 해럴드의 시종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에빈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다.

신골 소년 에빈은 옛 전사들의 영광과 비탄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을 꿈꾼다.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아버지를 잃고 혀를 잘린 이 소년은 해럴드의 아내인 레이디 올디스에게 노예로 팔려간다. 그는 여느 노예처럼 이름을 잃고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죽음 같은 절망에 빠졌지만 레이디 올디스의 배려로 글을 배우고 능력을 인정받아 해럴드의 종자로 발탁된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왕의 그림자'이다.) 그는 마침내 역사의 증인으로 자신이 목격한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된다.

작가는 영국 수도사들이 기록했던 '앵글로색슨 연대기'를 바탕으로 1063년부터 1066년까지 웨식스의 백작이었던 해럴드가 왕이 되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죽음을 맞는 일련의 과정을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앵글로색슨 왕조 최후의 날들을 역동적으로 전해 준다. 소설의 재미에 빠져들다 보면 덩으로 영국 역사의 결정적인 한 시대를 절로 이해하게 되는 책이다. **한글서림**

박상익 님은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서양사)이며 저서로는 《번역은 번역인가》 《언론자유의 경전 아레오파기티카》 《어느 무교회주의자의 구약성서읽기》 등이 있다.

